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오네시모스 사도

세리와바리사이파사람 주일(뜨리오디온시작)

성 빵그라띠오스 주교

제1조, 조과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제2응송 / 164. B 157
- 제1조 부활 찬양송 / 81. A 211
-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입당송 / 164. B 158
-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찬양송 / 164. B 157
- 성당 찬양송
-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시기송 / 164. B 159
- 사도경: II 디모테오 3, 10-15 / 봉독서 407
- 복음경: 루가 18, 10-14 / 133. B 85
-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성모송 / 166. B 162
-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영성체송 / 166. B 193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오네시모스 사도

신약에서 사도 바울로의 가장 짧은 서신은 필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서신을 쓰게 된 동기는 필레몬의 종 오네시모스에 관한 것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2월 15일을 오네시모스 성인의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가 “종이나 자유인이나”(갈라디아 3:28)라고 다른 서신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필레몬서를 읽어보면 이방인들의 사도 바울로의 종에 대한 감정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종이 주인에 대

한 불순종을 선포하면서 사회적 혁명을 통해 종이라는 큰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나 종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거듭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오네시모스를 “사랑하는 교우”(필레몬 1:16)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스와 필레몬에게 어떠한 혁명도 없이 종을 자유인의 자리로 올려놓았습니다.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 바리사이와 사람의 교만과 위선, 그리고 세리의 겸손과 회개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며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바리사이와 사람들은 형식적인 경건주의자로서 혹은 교만한 자나 율법주의자로 하느님의 뜻을 왜곡하며 사는 대표적인 인물들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원래 바리사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는 뜻일 만큼 그들은 금욕 생활, 기도, 금식을 통해 하느님께서 인도하실 미래를 준비하며 살았던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정결함 즉 영혼과 육신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위반할 수 없는 의무조항이었습니다.

바리사이와 사람이 기도합니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십 분의 일을 바칩니다.”(루가 복음 18,11-12) 그런데 도대체 이런 기도가 왜 필요한가요? 하느님이 몰라서 알려드리는 걸까요? 어떤 의도 간에 하느님과 아무 상관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선행도 하느님 앞에서는 자랑이 될 수 없고 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자랑하고 눈에 띄게 내놓기 시작하면 하느님께서 외면하십니다. 바리사이와 사람은 정작 자신은 하느

님을 떠났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벌써 그에게서 떠나셨는데도 자기 앞에 계신 줄로 착각하고 허공에 대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뜻이겠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차마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아픈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께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어쩔 수가 없었노라고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깨끗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겁니다.

사실 우리도 나약한 신앙생활에 변명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유를 대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하느님 앞에서의 내 진실한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진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은총은 오직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루가 18,14)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부터 사순절을 준비시키는 기

☞ 3면으로 계속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익명의 그리스도인)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나에게서 비롯된다

영국 에섹스에 있는 세례자 요한 수도원 설립자인 소프로니오스 수도사제(1896-1993)는 한 사람에 의해 단번에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였다. 그의 이런 말은 사로프의 세라핌(1754-1833) 성인이 한 말과도 일치하는데,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된다면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결점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내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은 어둠에 덮인 채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의 수렁 속에 갇혀 있으면서 타인의 잘못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물론 다른 이의 흠과 잘못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무척 쉽고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 면밀히 살피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우리 영혼에 큰 해를 입히는 일이 될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일은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며, 이로써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세례의 은총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 우리는 악한 세력에 저항하는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마음을 늦추지 않고 경계를 서는 일을 잘 해왔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이처럼 깨어서 (우리의 내면을) 지키는 일에 달려 있다.

▶ 아타나시아

☞ 2면에서 계속

간으로 접어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겸허한 자세로 맞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이

기간을 통해 세리처럼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몸과 마음을 낮추고 주님과 나의 관계를 되짚어보는 영적 투쟁의 의미 깊은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대교구

■ 한국정교회 120주년 기념 행사 연기 결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 추가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건강 또한 지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도 그동안 준비해 왔던 120주년 기념 행사를 연기하기로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120주년 기념 행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상황이 나아지면 나중에 실행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병자들이 속히 완쾌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트리오디온 시작

오늘 2월 9일 주일부터 트리오디온 기간이 시작됩니다. 트리오디온 기간은 우리 정교회의 일 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기간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번 트리오디온 기간에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여 영적으로 준비합니다. 트리오디온 첫 주간은 금식이 없습니다.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1월 26일 주일에 슬라브인 김 아르템 교우가 세례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 지상에서 마지막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 가정 성수식

새해를 맞이하여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성스러운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가정 성수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신자분들께서는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